

한·호주 FTA 체결에 따른 기대효과

한·호주 FTA가 '14.4.8일 공식서명 되었다. 협정 발효 후, 자동차, 열교환기, 펌프, TV 등 우리의 對호주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관세가 5년 내에 모두 철폐되어 FTA를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가 기대된다. 아울러 자원부국이면서도 정치·경제 환경이 정비된 호주와의 FTA는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자원 조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호주가 최근 주요 수입국들과의 FTA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조기 발효를 통해 FTA 선점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1 한·호주 FTA 추진 현황

□ 지난 '13.12월 타결된 한·호주 FTA는 '14.4.8일 공식서명을 거쳐 협정 발효까지 비준 절차만을 앞두고 있음

○ '09.5월 협상개시 후 한때 협상이 중단되기도 하였으나, 총 7차례의 협상 후 '13.12월 협상이 타결되었음

한·호주 FTA 추진 경과

일자	추진경과
2006. 12	한·호주 FTA 공동연구 개시 합의
2007. 5~10	한·호주 FTA 민간공동연구 회의(총 3회) 및 민간공동연구 완료('08.4)
2008. 8.11	FTA 예비협약 개최 합의
10~12	제1,2차 한·호주 FTA 예비협약
2009. 1.16	한·호주 FTA 및 한·뉴질랜드 FTA 공청회
3~4	한·호주 FTA 협상 공식개시 합의 및 사전준비회의 개최
2009. 5~2010.5	제1~5차 협상 개최
2013. 11.15	한·호주 FTA 공식협상 재개, 제6차 협상 개최(서울)
12. 3	제7차 협상 개최(인도네시아 발리), 한·호주 FTA 실질적 타결 선언
2014. 2.10	한·호주 FTA 가서명
2014. 4.8	한·호주 FTA 공식서명 (호주 토니 애벗 총리 방한중)

자료 : OKFTA(www.okfta.or.kr)

- 양국은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대부분의 교역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
- 호주는 발효 8년 이내에 교역되고 있는 전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그 중 대부분의 품목(품목수 90.8%, 수입액 86.0%)이 발효 후 즉시 철폐
 - 실질적으로 5년 내에 우리의 對호주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관세가 모두 철폐되어 관세절감을 통한 가격 경쟁력 향상이 기대됨
 - 한국은 발효 후 10년 이내에 품목수 94.3%, 수입액 94.6%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품목수 75.2%, 수입액 72.4%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
 - 농산물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양허제외나 계절관세, 10년간 50%감축, 최대 20년 동안의 관세철폐 등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양허유형 및 예외수단 확보

한·호주 FTA 양허 수준 비교

(단위 : 백만 달러, %)

양허유형	한국양허				호주양허			
	품목수	비중	對호주 수입액	비중	품목수	비중	對한국 수입액	비중
즉시	8,940	75.2	11,097	72.4	5,450	90.8	4,248	86.0
무관세	1,932	16.3	8,391	54.7	2,780	46.3	2,099	42.5
유관세	7,008	59.0	2,706	17.7	2,670	44.4	2,149	43.5
3년/3A	1,019	8.6	367	2.4	115	1.9	434	8.8
5년	564	4.7	2,684	17.5	411	6.8	256	5.2
7년	265	2.2	15	0.1	-	-	-	-
8A	-	-	-	-	32	0.5	1	0.0
10년	413	3.5	335	2.2	-	-	-	-
(10년내)	11,201	94.3	14,498	94.6	6,008	100%	4,939	100%
10년 초과	492	4.1	804	5.2	-	-	-	-
10년간 50% 감축	12	0.1	0	0.0	-	-	-	-
계절관세	5	0.0	3	0.0	-	-	-	-
양허제외/현행관세	171	1.4	25	0.16	-	-	-	-
총합계	11,881	100	15,330	100	6,008	100	4,939	100

주1 : 품목수는 HS 2009년(한국), 2007년(호주) 기준, 금액은 '07~'09 수입액 평균

주2 : n년 철폐 - 발효일부터 n단계 균등 철폐, 이행n년차 1월1일부터 무관세 적용

3A - 중고차(현행) 5%+대당\$12,000

→(발효일)3.3%+대당\$8,000→(이행 2년차 1월 1일)1.7%+대당\$4,000→(이행 3년차 1월 1일)무관세

8A - 이행4년차 1월1일부터 5단계 균등 철폐, 이행 8년차 1월1일부터 무관세 적용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한·호주 FTA 설명자료」

2

한·호주 교역 현황

- 호주는 우리나라의 제6위 교역국('13년)으로 對호주 수출은 지난 7년간 연평균 12.6%, 수입은 연평균 7.8% 증가
- 최근 수출 증가세가 수입 증가세를 앞서며 무역수지 적자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수입이 수출보다 커, 연평균 124.5억 달러 규모의 적자를 기록중

- 자원부국인 호주는 우리 산업에 필요한 철광, 석탄 등의 주수입국으로 무역수지 적자의 대부분이 원자재 수입에 기인

한국의 對호주 교역 동향

(단위 : 억 달러, %)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07-'13 연평균(%)
수출	46.9 (0.0)	51.7 (10.2)	52.4 (1.4)	66.4 (26.7)	81.6 (22.9)	92.5 (13.3)	95.6 (3.4)	12.6%
수입	132.3 (17.0)	180.0 (36.0)	147.6 (-18.0)	204.3 (38.6)	263.2 (28.7)	229.9 (-12.6)	207.9 (-9.6)	7.8%
교역	179.2 (12.0)	231.7 (29.3)	200.0 (-13.7)	271.0 (35.5)	344.8 (27.2)	322.4 (-6.5)	303.5 (-5.9)	9.2%
수지 〈증감액〉	-85.4 〈-19.2〉	-128.3 〈-42.9〉	-95.1 〈33.2〉	-138.2 〈-43.0〉	-181.5 〈-43.4〉	-137.4 〈44.2〉	-112.2 〈25.2〉	-125.4 억 달러

주 : ()안은 전년 대비 증가율

자료 : 한국무역협회

□ 양국의 교역구조는 우리가 공산품을 수출하고, 호주로부터 자원과 에너지를 주로 수입하는 상호 보완적인 형태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對호주 주요 수출 품목은 석유제품, 자동차 및 부품, 철강제품 등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철광, 석탄, 원유와 같은 자원이 대부분

- 특히 주요 수출 품목의 비중이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구조로 상위 2대 수출품목에 대한 교역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수출) 석유제품, 자동차 : 59.8% , (수입) 철광, 석탄 : 56.4%

우리나라의 對호주 주요 교역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수 출				수 입			
품목명	2012	2013	비중	품목명	2012	2013	비중
석유제품	3,066.1	3,617.3	37.8	철광	6,325.5	5,983.8	28.8
자동차	2,333.8	2,103.1	22.0	석탄	6,457.5	5,733.6	27.6
레일 및 철구조물	49.5	656.1	6.9	원유	2,195.0	1,750.4	8.4
자동차부품	286.7	279.4	2.9	육류	796.1	882.2	4.2
종이제품	174.2	162.3	1.7	알루미늄	729.9	780.3	3.8
무선통신기기	280.8	155.5	1.6	동광	892.6	741.6	3.6
건설광산기계	181.1	150.5	1.6	기타 금속광물	685.0	599.3	2.9
영상기기	182.7	145.2	1.5	곡실류	523.5	570.8	2.7
합성수지	156.9	135.6	1.4	천연가스	611.7	450.6	2.2
정밀화학원료	140.6	128.6	1.3	기호식품	555.3	424.1	2.0
소계		7,533.6	78.8	소계		17,916.7	86.2
총계		9,563.1	100.0	총계		20,784.6	100.0

주 : MTI 3단위

자료 : 한국무역협회

□ 수출액 상위 20개 품목(HS 6자리 기준)에 대한 양허내용을 살펴본 결과, 기존의 무관세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의 대부분이 즉시 철폐 대상으로 분류되어 향후 우리나라 제품의 호주 수입시장 점유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승용차의 경우, 주력품목인 가솔린 소형차와 중형차에 적용되던 관세 5%가 즉시 철폐되어 가격경쟁력 확보에 유리
- 이미 높은 수준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공업용 기기와 소비재 가전(TV, 냉장고)에 대한 관세도 발효와 함께 즉시 철폐됨

對호주 주요 수출품목 양허 내용

(단위 : 백만 달러, %)

HS6	품목명	對한국 수입액	수입시장 점유율	양허안
271019	석유와 역청유 조제품 (석유, 역청유 함유량 70% 이상)	2,526.5	17.2	기존 무관세
870323	가솔린 승용차 (1,500cc초과 3,000cc 이하)	1,127.1	12.9	5%→0%(즉시 또는 3년 균등철폐) ¹⁾
271012	경질석유 및 조제품 (석유, 역청유 함유량 70% 이상)	830.5	28.7	기존 무관세
870332	디젤 승용차 (1,500cc초과 2,500cc 이하)	707.3	28.2	5%→0%(즉시 또는 3년 균등철폐) ¹⁾
841950	열교환기	402.0	71.6	수송용 차량용: 5%→0%(5년 균등) 그 외 5% 즉시
842139	기체용 여과기, 청정기(내연기관용 제외)	271.1	44.2	5%→0%(즉시)
852872	컬러 텔레비전	130.6	12.2	5%→0%(즉시)
841370	원심펌프	123.5	37.8	5%→0%(즉시)
851712	휴대전화기	112.9	3.1	기존 무관세
841940	증류기, 정류기	109.7	98.1	5%→0%(즉시)
841989	온도제어식 기기	103.6	40.9	5%→0%(즉시)
870322	가솔린 승용차 (1,000cc초과 1,500cc이하)	83.1	5.9	5%→0%(즉시 또는 3년 균등철폐) ¹⁾
271320	석유 아스팔트	82.2	16.6	기존 무관세
850710	축전지(엔진 시동용)	82.1	44.2	5%→0%(즉시)
870421	화물운송용자동차(5톤 이하)	78.5	1.9	5%→0%(즉시)
842952	메커니컬 셔블, 굴착기(360도 회전)	74.4	8.5	0~5%→0%(즉시)
841810	냉장고와 냉동고(외부도어가 분리된 것)	65.9	23.0	5%→0%(즉시)
401110	승용차용 고무타이어(신품)	61.5	7.0	5%→0%(즉시)
841480	기체, 가스용 펌프, 압축기, 팬	57.1	6.9	0~5%→0%(즉시)

1) 중고차에 한해, (현행)5%+대당\$12,000→(발효일)3.3%+대당\$8,000→(이행2년차1월1일)1.7%+대당\$4,000→(이행3년차 1월1일)무관세

자료 : GTA

3

한 · 호주 FTA 수출유망품목

- 호주의 인구수는 약 2천 3백만 명으로 절대적인 규모는 크지 않으나, 1인당 국민소득이 약 6만 4천 달러에 달해 소비력이 높은 시장임
- 호주는 최근 내수부진과 성장둔화 등 대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한국은 FTA 관세철폐효과를 적극 활용하여 수출 확대보다는 시장점유율 확대에 주력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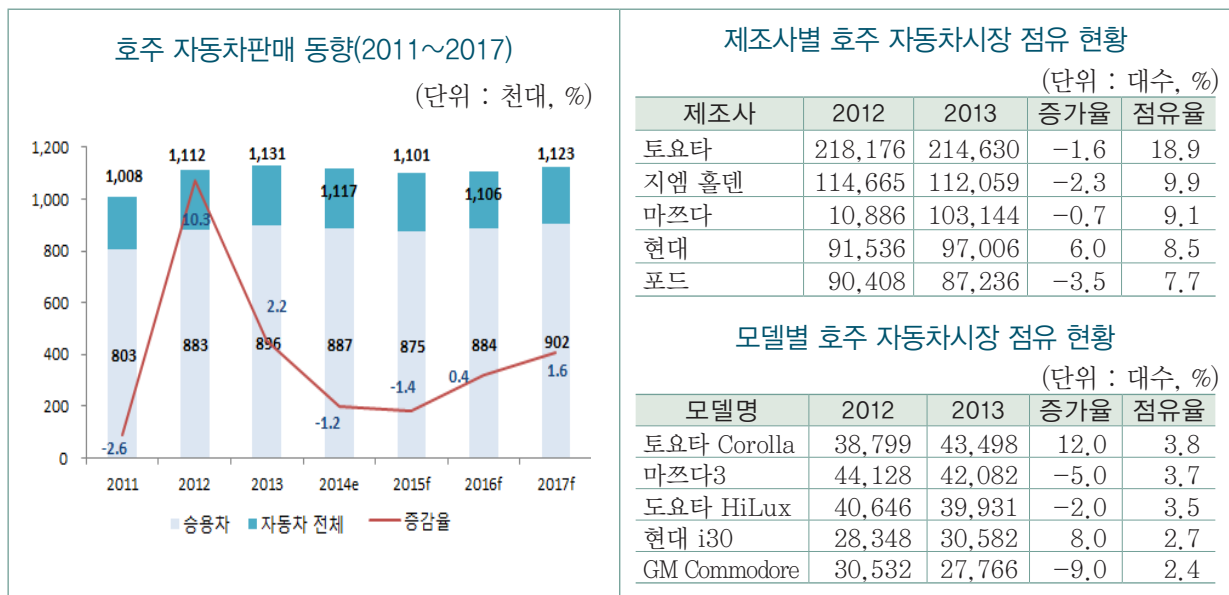
호주의 경제현황

연도	2011	2012	2013e	2014e	2015e
명목 GDP(십억 달러)	1,490	1,541	1,488	1,459	1,514
명목 1인당 국민소득(달러)	66,202	67,304	64,157	62,127	63,677
실질 GDP 성장률(%)	2.4	3.7	2.5	2.8	3.0
상품 수입 증가율(%)	10.8	6.5	1.3	3.3	2.6
인구(백만 명)	22.5	22.9	23.1	23.5	23.8

자료: IMF (e : 추정치)

① 자동차

- 주력 수출품인 승용차의 경우 2017년부터 호주 자동차시장이 수입중심체제로 전환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FTA활용을 통한 수출확대가 기대됨
 - 최근 호주 내 생산기지를 보유하고 있던 포드, GM, 토요타 등의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가 생산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호주 내에서 생산을 중단하기로 발표
 - 포드 : 2016년 철수 예정 / GM, 토요타 : 2017년 철수 예정
 - 이에 따라 2017년부터는 자동차 판매량의 대부분이 국내생산에서 수입으로 전환되어 완성차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한 · 호주 FTA가 발효되면 가솔린 중 · 소형차와 디젤 소형차를 중점적으로 수출하는 국내업체의 수출확대 기대
 - 호주 내에서 자동차 전체 판매량은 감소하고 있으나, 소비자 선호가 내구성과 경제성을 중시하는 추세로 옮겨감에 따라 SUV나 소형차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음
- 국내 제조사의 시장점유율도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FTA 조기 발효시 시장 선점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자료 : BMI (e : 추정치, f : 전망치)

자료 : Federal Chamber of Automotive Industry

② 기타 유망품목 (「부록 참고」)

- ※ 선정 기준 : ① 호주의 對세계 수입 1천만 달러 이상('13년)
 ② 對세계수입 연평균 증가율 10%이상('10년~'13년)
 ③ 對한국 수입 50만 달러 이상('13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품목

□ 관세 즉시 및 5년 이내 철폐 대상 중, 對세계 수입 1천만 달러 이상, 최근 4년간 연평균 수입증가율 두 자릿수 이상 품목을 분석한 결과 금속제품과 기계류가 향후 對호주 수출 증가가 예상되는 유망품목으로 나타남

○ (금속제품) 철강재 구조물(HS730890), 철강재 플렉시블 튜빙(HS830710), 유정용 기타 케이싱, 튜빙(HS730429) 등은 호주의 對세계 수입액이 1억 달러 이상 품목으로 최근 4년간 연평균 30% 이상의 수입 증가율을 나타내 FTA 발효 이후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특히, 철강재 구조물의 경우 對세계 수입액이 20억 달러에 달하면서도 연평균 증가율이 32%로 시장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 FTA 발효로 5% 관세가 즉시 철폐될 경우 시장 점유율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기계류) 증류기/정류기(HS841940), 열교환기(HS841950), 기체용 여과기/청정기(HS842139)도 연평균 80%이상 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발효 후 수출 증가 기대

○ (기타) 진공청소기(HS850811), 조명기구(HS940510, HS940540)역시 관세 즉시 철폐 대상으로 호주 내 수요확대에 따라 수출 확대 기대

4

결론 및 시사점

- 호주는 1인당 소득수준이 높은 소비력이 있는 시장으로, 우리와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FTA에 따른 양국간 교역확대가 기대됨
- FTA 발효 후 5년 이내에 對호주 교역품에 대한 관세가 모두 철폐되며,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와 금속제품 및 기계류 등 수입수요 확대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최근 호주 정부가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양자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조기 비준 및 발효를 통해 선점효과를 누릴 필요
 - 호주는 주요 수입국 중 미국, ASEAN과의 FTA를 발효하였고, 중국, 일본, EU와의 FTA는 미체결 상태(중국, 일본과의 FTA는 현재 협상단계에 있음, '14.4월 기준)
 - 이처럼 호주가 자국의 주요 수입국과의 FTA 체결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조기 발효를 통해 시장경쟁력 제고 필요
- 아울러 호주는 자원부국이면서도 신흥국들에 비해 정치적·경제적으로 안정된 선진국으로 FTA를 통한 협력관계 진전이 안정적인 자원조달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한편 호주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위치하지만 우리에게선 정치·경제환경이나 문화 등이 잘 알려지지 않은 교역 파트너이므로 FTA 활용 확대를 위해 호주 시장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문의 국제무역연구원 통상연구실 정혜선 연구원 (6000-5344, hsjung1110@kita.net)
 제현정 연구위원 (6000-5175, hjje76@kita.net)

부록

對호주 수출 유망품목

(단위: 백만 달러, %)

	HS 코드	품목명	對세계 수입 (2013)	연평균 증가율 (2010-13)	對한국 수입 (2013)	한국의 점유율	관세율	양허유형	경쟁국 점유율 (* : FTA 체결)
식품	121221	해조류(김)	19.6	20.4	3.0	15.3	5%	즉시	중국(63.6)
	190490	씨리얼	30.1	34.6	0.6	1.9	4%	즉시	태국(38.2)
화학 제품	340119	기타 비누	15.3	38.4	1.3	8.3	5%	즉시	영국(22.5)
	390230	프로필렌 공중합체	73.2	15.2	6.7	9.2	5%	3년균등	싱가포르(27.5)*
	390311	발표성 스티렌 중합체	77.3	11.4	16.1	20.8	5%	5년균등	대만(41.0)
	391731	연질의 관, 파이프, 호스	10.6	44.9	0.1	1.2	5%	즉시/5년균등	중국(18.0)
	391739	승객 차량용 튜브, 파이프 등	63.6	29.7	1.7	2.7	5%	5년균등	미국(27.4)*
가죽 제품	420231	가죽/코포지션 레더 포켓	68.5	16.2	0.7	1.0	5%	즉시	중국(47.5)
	420232	가죽제 지갑, 케이스 등	95.5	31.6	8.6	9.0	5%	즉시	중국(73.1)
섬유 직물 신발	560819	기타 망지, 어망	17.1	22.3	0.6	3.4	5%	즉시	중국(36.5)
	570320	나일론 바닥갈래	120.1	35.8	1.8	1.5	5%	4년차부터 5년균등	태국(29.7)*
	590700	기타 침투, 도포 방직용 직물	18.0	13.1	3.6	20.0	5%	즉시	미국(15.9)
기타	640220	신발(갑피끈 플렉 삽입식)	48.1	30.4	0.1	0.2	5%	5년균등	브라질(46.5)
	690919	기타 도자제품	25.3	43.6	1.9	7.6	5%	즉시	중국(44.0)
	711790	기타 모조 장식용품	80.3	16.8	0.8	0.9	5%	즉시	중국(61.6)
금속 제품	721710	도금, 비도포 철강선	42.2	25.4	1.4	3.2	5%	즉시	싱가포르(39.5)*
	730429	유정용 기타 케이싱, 튜빙 등	274.3	44.1	0.4	0.1	5%	즉시	일본(52.5)
	730531	세로 용접 철강재 관	47.0	33.3	34.9	74.3	5%	5년균등	터키(16.5)
	730539	기타 철강 파이프	18.5	77.2	15.1	81.5	5%	5년균등	중국(7.5)
	730793	바트용접한 연결구	86.4	128.5	7.9	9.2	5%	즉시	터키(47.5)
	730820	철강재 탑, 격자주	78.8	32.5	12.5	15.9	5%	즉시	중국(47.9)
	730890	철강재 구조물	2,111.2	32.0	20.1	1.0	5%	즉시	중국(35.6)
	740710	정제동의 봉, 프로파일	103.2	45.2	1.0	1.0	5%	즉시	말련(32.1)*
	740940	동, 니켈 합금 판, 쉬트, 스트립	20.8	157.3	12.8	61.5	5%	즉시	태국(34.9)*
	741210	정제동의 피팅, 파이프 등	27.8	69.6	1.1	4.1	5%	즉시	스페인(41.9)
	761410	철강심 알루미늄 제품	21.8	69.4	0.6	2.9	5%	즉시	바레인(72.2)
	830710	철강재 플렉시블 튜빙	133.3	30.2	3.7	2.8	5%	즉시	영국(39.5)
기계	841370	기타 원심펌프	326.3	24.8	123.5	37.8	5%	즉시	중국(13.2)
	841430	냉장설비용 압축기	182.6	11.8	3.7	2.0	5%	3년균등	이태리(28.9)
	841490	공기, 가스 펌프, 컴프레서	330.4	89.1	0.5	0.1	5%	즉시	이태리(55.8)
	841940	증류기/정류기	111.8	622.3	109.7	98.1	5%	즉시	독일(0.5)
	841950	열교환기	561.3	83.6	402.0	71.6	5%	즉시/5년균등	영국(8.7)
	841989	수동 전기기계식 공구	253.0	68.1	103.6	40.9	5%	즉시	인니(18.6)*
	841990	기계 플랜트 부품	120.9	23.5	1.4	1.2	5%	즉시	이태리(22.0)
	842139	기체용 여과기/청정기	613.0	96.0	271.1	44.2	5%	즉시	중국(18.3)
	842620	타워 크레인	37.5	25.5	1.1	2.9	5%	즉시	스페인(39.1)
	843139	8425~8430호 기계 부품	466.1	45.5	0.6	0.1	5%	즉시	필리핀(37.1)*
	848120	유압전송용 밸브	43.4	21.9	1.0	2.3	5%	5년균등	독일(58.7)
	848130	체크밸브	48.4	23.3	2.3	4.7	5%	3년균등	미국(23.5)
	848140	안전밸브	61.6	10.9	0.4	0.7	5%	5년균등	미국(38.7)
전기 기기	850300	전기모터, 발전기 부품	187.9	72.6	2.9	1.6	5%	5년균등	이태리(93.4)
	850760	리튬이온	101.7	19.7	1.2	1.2	5%	즉시	중국(39.0)
	850811	1,500와트 이하 진공청소기	227.0	14.9	10.9	4.8	5%	즉시	말련(49.9)*
기타	854460	기타 전기도체(천볼트 초과)	120.1	77.7	3.7	3.1	5%	즉시	뉴질랜드(15.3)*
	902910	승객 차량용 속도계 등	16.0	32.6	0.5	3.1	5%	5년균등	중국(32.5)
	940510	전기식 조명기구	408.8	22.7	1.7	0.4	5%	즉시	중국(72.7)
	940540	기타 전기램프, 조명기구	286.3	15.0	1.9	0.7	5%	즉시	중국(62.2)
	940560	조명용 사인	24.3	30.2	0.3	1.1	5%	즉시	중국(74.4)

주 : 경쟁국 점유율은 해당 HS 코드 품목의 호주 수입시장 점유율 1위(한국 1위시 2위) 국가와 점유율을 표시함
 자료 : GTA, 호주 양허안